P2P업체, '연계투자' 새 도약… 중금리 대출 등 사업 속도

금융당국, 여신-P2P 연계투자 허용
온투법-업권법 사이 유권해석 관건
P2P업계 "상품 안정화 우선 집중"

금융당국이 여신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연계투자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업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와 관련한 세부적인 유권해석은 지지부진해 업계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금융사의 온투법상 연계투자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16일 기준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P2P업체가 36곳까지 늘어나면서 업계는 앞다퉈 사세를 넓히는 등 도약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P2P업체 피플펀드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온투업계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피플펀드는 내년 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취득해 ▲마이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상품 제안 ▲개인 금융정보 비교 분석 정보 제공 ▲개인의 위험 관리 및 건전한 금융 활동 지원 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P2P업체 윙크스톤을 운영 중인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신한금융투자 등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윙크스톤파트너스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32억원이 됐다.

/유토이미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8퍼센트는 지난달 실리콘밸리 투자사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등으로부터 45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8퍼센트는 이번 투자금을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퍼센트는 KG이니시스,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 인터밸류 파트너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활력을 되찾고 있는 P2P업계의 발목을 잡은 건 금융당국의 애매한 유권해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P2P투자를 허용한다면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업권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밝히지 않았다.

P2P업체에 투자한 금융사가 온투업법이 아닌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법을 적용받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P2P업체에 투자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을 적용받으면 충당금 및 건전성 규제를 비롯해 여신심사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등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최악의 경우 투자 유치 요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P2P업계는 자본 확충, 소비자 신뢰도 상향 등을 위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대출공급을 위해 기관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당국의 유권해석이 빈약해 눈치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격적인 영업을 시도하지 못해 상품 안정화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소완 기자 think@metroseoul.co.kr

신한銀,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 출시

큰 글씨, 색상 대비로 시인성 강화
초당 4음정 가량 느린말 안내 예정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는 시니어 고객의 보다 편리한 ATM 업무를 위해 큰 글씨와 쉬운 금융 용어를 사용하고, 색상 대비를 활용해 시인성을 강화하는 등 기존 ATM 화면을 개선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느린말 안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ATM의 안내음성을 기존대비 70% 수준인 초당 4음정 가량의 속도로 조정한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난곡지점의 ATM에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를 적용한 모습과 실제 시니어 고객이 이용하는 모습.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 맞춤형 ATM 서비스'를 60대 이상 시니어 고객 내점 빈도가 높고, 창구 업무의 75% 이상이 ATM에서도 가능한 입출금 등 단순 업무인 신림동 등 5개 고객중심영업점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번호표 발행기, 번호 표시기, 디지털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도 시니어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화면을 구성한 시니어 고객 맞춤 화면을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만큼 시너지 고객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니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3분기 대외금융자산 2.1조弗… 역대 최대

서학개미 증가·글로벌 주가 상승 영향
美 테이퍼링 우려… 국내주식보유 ⬇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이 역대최대치를 갈아 치웠다. 해외주식을 사는 개인투자자 '서학개미'들이 늘어난 가운데 글로벌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분기 대외금융자산은 2조104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306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산 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해외 금융자산을 말한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81억달러)를 중심으로 전분기 말 대비 84억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지분증권 및 부채성 증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83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보여주는 대외금융부채는 올해 9월 기준 1조4948억 달러로 전 분기말 대비 879억달러 감소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각각 1조754억달러, 6108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지분·주식(펀드포함)·파생금융상품을 뺀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규모가 확정된 대외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대외건전성 비표인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5.5%로 전분기 말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6.9%로 전분기 말 대비 2.5%p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IBK 도토리은행' 오픈

IBK기업은행은 싸이월드제트와 '서비스 협업 및 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에 'IBK 도토리은행'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IBK 도토리은행'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방문해 기업은행의 개인상품 및 서비스 체험이 가능한 은행권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영업점이다.

기업은행은 도토리 구매건수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는 'IBK 도토리통장(가칭)' 등 싸이월드 유저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게임요소를 접목한 '메타버스 금융체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의 한계를 보완한 메타버스 뱅킹 구현으로 새로운 미래금융 채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IBK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제14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

전체 종합·CSR 디지털콘텐츠 2관왕

우리은행

'돈을 밝히자' 캠페인 우수 평가
24일까지 축하 댓글 이벤트

우리은행은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전체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사회공헌(CSR)콘텐츠부문 디지털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는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국회가 공식 후원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지수와 콘텐츠 경쟁력 지수 등을 평가해 고객과의 소통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MZ세대의 당당한 금융 생활을 응원한다'는 주제로 SNS금융 캠페인 '돈을 밝히자'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및 브랜드 미디어 유튜브 채널 '웃튜브(WooTube)'를 비롯한 SNS채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우리은행이 방구석연구소와 함께 삼일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는 고객 참여형 SNS 캠페인 '#기억하_길'은 MZ세대의 트렌드인 '선한 영향력'과 시너지를 발휘해 사회공헌(CSR) 콘텐츠부문 디지털콘텐츠대상을 수상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수상을 기념해 축하 이벤트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우리은행 SNS채널에 대한 아이디어 및 수상 축하 댓글을 남기면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00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고객 소통 인정… SNS 콘텐츠 대상

DB손해보험

소셜매거진 프로미라이프 고평가

DB손해보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대고객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DB손해보험이 '제14회 대한민국 소통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SNS 콘텐츠 부문)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포스트 등 기업 SNS 채널 콘텐츠의 효용성, 고객 친화적 콘텐츠 가공, 운영의 독창성 및 효율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SNS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프로미라이프'를 모바일 매체로 전환한 '소셜매거진 프로미라이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소셜매거진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콘텐츠로 정보의 효용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달 방식 등 운영에서의 참신함과 높은 효율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유용한 콘텐츠 가치 있는 콘텐츠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소완 기자